

金東仁 初期小說의 근대성 연구

이 동 길*

< 차례 >

I. 서 론

II. 新文明의 재인식과 개체의 존재의미 재정립

III. 윤리규범의 새로운 바탕과 근대

인의 의식

IV. 결 론

I. 서 론

1920년대 소설은 그 이전 시대와는 달리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보다 자각적이면서 명징하게 나타나 본격적인 근대소설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데 그 소설사적 의미가 깊다. 그래서 이 시기의 소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김동인 초기 소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¹⁾ 그래서 김동인의 초기소설은 우선 소설사적인 관심에서 주목되기 시작했고, 백철의 「新文學思潮史」 이후 본격적인 근대문학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족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결여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반된 평가는 작품의 외면에 드러난 특징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달리 평가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

* 계명전문대학

1) 김윤식 교수가 ‘내적형식’에 초점을 두고 현대소설사를 살펴가는 가운데, 김동인이 ‘방법으로서의 예술성’을 끌어들이므로써 “우리소설사가 계몽주의 차원에서 한 단계 높아졌”다고 했다.(「한국소설사」, 예하, 1993, 82쪽). 이재선 교수는 김동인이 “문학의 독자성을 옹호했던 작가”로, “현대적인 단편소설의 확립자라는 점에서 그의 문학의 소설사적 의의는 자못 큰 것이다”고 했다.(「김동인전집」 17, 조선일보사, 1988, 84쪽)

약한 者의 슬픔」과 「마음이 열린 者여」이다. 즉 김홍규는 “황폐한 자아가 더러운 세계와 共謀함으로써 파멸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약한 者의 슬픔」에 나타나는 ‘전략의 구조’의 진상이다”²⁾라고 하면서 “황폐한 삶의 비관적 확인”³⁾이 김동인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비해, 윤명구는 “일종의 이니시에이션 스토리(initiation story)”⁴⁾라고 하면서 “性を 통한 自我의 確立”⁵⁾을 주장하고 있다. 신동옥은 “人物의 心情的 變化에 따른 논리적 비약”⁶⁾이 있지만 “약자에 대한 세속적인 세계의 냉혹함이 비교적 냉담하게 제시되어 실제상의 삶의 문제를 소설적 감동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고 하였다.

여기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기존 연구의 경우는 주인공이 대사회적 대응 태도에 대해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주인공 자신의 내면심리의 발전양상보다 내면심리의 특징적 양상을 더 부각시킴으로써 심리가 단순화되어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왜곡되게 된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경우도 내면심리의 전개에 있어서 내재적인 논리를 세밀히 살피기보다 이야기 전개에 따라 드러나고 있는 일반적 성격을 드러내는데 그치고 있어 그것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소설사적으로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선명히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완성된 작품은 유기체라는 점을 상기하고 텍스트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거기에 내재한 일관된 논리와 의미를 찾아 낼 때 한 작품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 「약한 者의 슬픔」이나 「마음이 열린 者여」는 다른 소설과 달리 내면심리를 비중있게 다루면서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에 내면적 논리와 인식적 기반에 대한 분석은 더욱 긴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인식적 기반에 대한 문제는 근대

2) 김홍규, <荒廢한 삶과 英雄主義>(1977), 김동인 전집 17, 조선일보사, 1988, 150쪽

3) 김홍규, 앞의 책, 151쪽.

4) 윤명구, 「金東仁 小說研究」, 인하대학교 출판부, 47쪽.

5) 윤명구, 앞의 책, 44쪽.

6) 신동옥, 「우리시대의 작가와 모순의 미학」, 개문사, 1982, 50쪽

7) 신동옥, 앞의 책, 51쪽.

8) 이강언, <金東仁小說과 內面心理의 表出樣相>(영남어문학 제10집, 1983.12.)에서 이 두 작품의 내면심리의 표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소설의 근대성 규명에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1920년대의 작품이 대사회적인 데로 관심을 전환하게 된 내재적 요인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약한 者의 슬픔」이나 「마음이 열은 者여」는 김동인의 초기소설 가운데 「배따라기」나 「감자」에 비해 그 작품성은 떨어지지만, 김동인이 이광수의 계몽주의를 거부하고⁹⁾ 그 대안으로 인생의 참된 고민을 탐구할 것을 제시하¹⁰⁾면서 발표한 첫 작품들이기에 작품적 특성이 더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내면적 전개논리와 그 인식적 기반을 밝혀냄으로써 김동인의 초기소설이 지니고 있는 소설사적 의의를 재검토하려고 한다.

II. 신문명의 재인식과 개체의 존재의미 재정립

1. <약한 者의 슬픔>의 경우

강자가 힘으로 약자를 유린하는 현실에서 약자의 대응을 문제삼고 있는 <약한자의 슬픔>은 겉으로는 신학문을 공부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인습에 젖어 있는 신여성이 어떤 신지식으로 인한 혼란된 심리와 행동을 통해 개체의 존재의미를 자각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재조와 容姿’를 갖춘 강엘리자베트는 부모가 일찍 돌아간 외로운 처지에서 조선의 선각자로 자처하는 K남작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19살 처녀의 들뜬 마음은 이성애에 대한 그리움과 고단한 처지에서 오

9) 김동인은 <小說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1919년)에서 “소설가 즉 예술가요. 예술은 인생의 정신이요, 사상이요, 자기를 대상으로한 참 사람이요, 사회 개량, 神人合一을 수행할 자이오. 쉽게 말하자면 예술은 개인 전체이오.”라고 하고, <朝鮮近代小說考>(1929년)에서 춘원에 대해 “종래의 권선징악과 춘원의 권악징선(당시의 도덕안에 비추어)의 사이에는 오십보 백보의 차밖에 없다.”고 하면서, “소설자는 인생의 회화는 필지언정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교화 기관(적접적 의미의)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동인 전집』 16, 조선일보사, 1988, 20쪽)

10) “우리는 소설의 取材를 구구한 조선 사회 풍속개량에 두지 않고 ‘인생’이라 하는 문제와 살아가는 고통을 그려 보려 하였다. (앞의 책, 23쪽)

는 외로움으로 ‘무한한 적막’을 느끼고 있다. 그 적막감이 잠들기 전 사랑하는 이환과의 ‘결혼, 신혼여행, 노후의 안락’ 등에 대한 공상에 젖게 하였고 남작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遠因이 되고 있다.

부인을 둔 남작이 건너방에 있는 강엘리자베트를 유린할 때 강엘리자베트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더라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는 처지에서 강엘리자베트가 남작의 요구를 받아들인 내면적인 요인은 K남작에 대한 선망과 내면에 잠재한 신분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신학문을 배워 자유연애사상에 물든 강엘리자베트에게 이환에게 대한 작사랑은 이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치게 했지만, 남존여비의식과 신분의식이 여전한 당시의 상황과 부모도 죽고 가난한 자신의 처지에서 비록 신학문을 통해 개체의 자율성과 남녀평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강엘리자베트는 아직 사랑을 고백할 용기가 없는 상태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K남작은 그가 조선의 선각자로 자임하는 만큼이나, 그녀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다.

강엘리자베트가 남작의 요구에 대한 거절의 표시로 ,

그는, 男爵의 要求를 깨다랐다. 하고 겨우 중얼거렸다.

“夫人이 아르시면?”

“앗차!” 그는, 속으로 高喊을 쳤다. ‘夫人이 모르면 잊지한단 말인가?--- 모르면? -- 이거시 許諾의 意味가 아닐까? 그러면 너는 그거를 실행하느냐? 勿論 실행하지. 무엇? 실행해? 네마음속에, 許諾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나 아--- 許諾하면 잊었나? 그래도---’

“夫人이 계시면서두?---”

“앗차!” 그는 쏘속으로 고향을 안칠수가 업섰다. “夫人이 업스면 잊지한단 말인가?--- 이거슨 許諾의 의미가 아닐가?---.”¹¹⁾

라고 변민하는 태도에서 남작에게 평소에 호감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¹²⁾ 만일 남작에 대한 평소의 감정이 좋지 않았거나 남작을 싫어 했다면 그리고 이환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이 확고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아무리 강열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애매한 태도는 취

11) 「創造」 제1호, 1919. 2., 58쪽.(태학사, 1982)

12) 김우종도 “<약한 者의 슬픔>에 나타나는 弱者의 意味”(「김동인 연구」, 새문사, 1982, III -7.)에서 “엘리자베트는 K남작의 돌연한 침입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또는 잠시라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남작의 요구에 대해 부인이 있는 남자라는 것이 양심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작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사회적 제약과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자기 마음에 드는 대상과 자유롭게 연애했을 수 있다고 신학문을 통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점은 당시의 자유연애에 들뜬 신여성에 대한 풍자¹³⁾를 통해 추측하건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강엘리자베트는 남작의 요구에 윤리적인 측면은 깊이 의식하지 않은 채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단한 처지에 있는 강엘리자베트가 신학문을 배우면서 주위로부터 재주를 인정받아 지식인으로 자부하고 사교계의 꽃이 되고자하는 욕망을 내면에 지니고 있었기에, 기존규범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고 겉으로 보아 선각자처럼 보이는 남작과의 관계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임신을 알고 나서부터 남작에게 기운 마음이 한층 더 깊어져 갔고 그라는 가운데 자신이 본부인이 되어 사교계의 꽃이 되는 꿈을 그리고 있는 모습에서, 평소의 희망과 남작에 대한 선망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저녁 머근뒤에 처음으로 약을 마실때에 엘니자벳트의게는 한 바라는 바가 이었다. 그의 躁急한 性格과 未來에 대한 希望이 나은 바람은 다른거시아니다. 藥의 効果이 卽刻으로 나타나스면---하는 거시다.

이바람은 벌써 차차 엘니자벳트의 머리에 空想으로서 實現된다.---그는 생각하여 보았다.---

이제 男爵夫人이 죽는다. 그때에는 엘니자벳트는 男爵의 正室이 된다.

“朝鮮第一의 미인, 社交界의 꽃이, 이 나루구나” 엘니자벳트는 눈을 번뜩거리며 생각한다.¹⁴⁾

게다가 이러한 태도는 당시까지 첩제도가 공공연히 묵인되던 상황에서 강

13) 「개벽」 제9호의 “社會諷刺 銀과리”(107-111쪽)에서 신학문을 배운 여성이 ‘新式’을 내세우며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양태를 비판하고 있다. 김동인도 「마음이 열은者여」에서 “대바테 竹筍과 갓치 나오는 小説은 모두 戀愛結婚 主唱의 論說뿐이니 야마 우리나라에서는 文學小說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아나보다”(42쪽)는 데서 자유연애가 풍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위의 책, 72-73쪽.

엘리자베트는 첩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강엘리자베트가 남작에게 한층더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잉태를 알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 이환과의 사랑에 대한 희망이 깨어짐에 대한 큰 아픔을 느끼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남작이 오지 않으면 ‘속이 타고 질투’를 하며 남작이 자기를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남작이 “内外의 節과 안방사랑의 別은 廢하였지만 男尊女卑의 생각”은 굳게 지키고 있듯이, 강엘리자베트의 내면에 양반과 상민이라는 신분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는 잉태를 알고 남작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남작이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우르니 할 수 있소. 자 엇더케 하잔 말이요?”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드른 엘니자베트는 一邊 깃브고도 一邊 더 섭고 억지도 쓰고 시펄다. 그는 날 카롭게 말했다. 「모르게서요 몰나요. 전 아모래도 상스거시니간」 「그러지 말구. 엇저잔 말이요」 「몰나요 몰나요 저가튼거슨 사람이 아니닛간」¹⁵⁾이라고 하면서 남작의 처분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데서 드러난다.

강엘리자베트는 평소에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정을 주는 것을 양심에 거리까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에서 실제적인 문제로 부딪치게 되자 현실과의 괴리가 큰 것을 인식하고 난감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강엘리자베트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자신의 처지와 결정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사회적 인습에 기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실과의 타협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 모르게 낙태를 함으로써 자유롭게 살아갈려고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강엘리자베트는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의 중심된 가치는 배제한 채, 자기에게 편하고 유리한 대로 살아가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낙태가 실패하게 되면서 강엘리자베트는 이로 인해 고통받고 슬퍼하는 가운데, 사랑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강엘리자베트는 남작과 관계를 갖게 된 이후, 드러내놓고 살지 못하게 될 자신의 처지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충동으로 몸을 허락한 자신의 나약함 그

15) 위의 책, 66쪽.

리고 남작부인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 그러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남작에게 대한 애착이 함께 뒤엉킨 채 고통스런 나날을 보낸다. 신학문을 배우는 지식인으로서 스스로 반상의 신분 의식과 일부다처의 인습을 부정하면서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남작에게 그 인습을 요구하고 있는 모순, 그리고 여성으로서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규범을 어기고서도 이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바라는 모순된 심리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환에게 대한 생각이 날 때마다 미래에 대한 암담함으로 인한 아픔과 자신의 중시없는 행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그녀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세울 뿐이다.¹⁶⁾ 게다가 자신이 다른 길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 않고는 모를 수밖에 없는 혜숙이가 지적해왔을 때, 비로소 사랑하는 이환이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데서 고통은 절정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고통속에서 강엘리자베트는 사랑은 자신이 믿는 바에 확신을 갖고 마음과 몸이 일치된 상태에서 '사랑과 가까움과 정다움'이 함께 하는 가운데 그것을 견고히 지키는 데서 성취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유연애가 개인의 자율성에 따라 마음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도덕성이 뒷받침 된 바탕에서 올바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존재의미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된다. 강엘리자베트는 남작의 주선으로 병원에 가는 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건강하고 지적이며 아름다운 여성으로서의 자부심¹⁷⁾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그에 비례하여 큰아픔과 부끄러움을 안고 병원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자신의 처지에서 끝없는 절망에 휩싸인다. 학생으로서 꿈 많던 지난 시절과 현재가 대조되면서 건강한 삶의 대열에서 낙오된 절망적인 상황이 그녀의 존재를 무력화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후회와 절망을 통해 올바른 삶의 의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절실히 생각

16) “自己의게는 사랑스러움과 갓가움이 온전히 分立하여 잇는 거슬 아른 엘니자베트는 어니편이 自己게 더 정다울지를 알지못하게 되었다.” “利便이가 더 정답다 생각할 때에도, 마음에 얼마의 苛責이 잇고, 그러니 男爵이 더 정답다 생각할 때에는 더 큰 아픔이 마음에서 내려난다.”(위의 책, 63쪽)

17) 엘니자베트는 뷔인 자리를 차져 안저서 車안을 둘러 보았다. 그는 自己편으로 향한 모든 눈에서, 老婆의게서는 蔑畵--젊은女子의게서는 식기-- 남자의게서는 愛慕--를 보았다. 이모든 눈은 엘니자베트의게 한 快感을 주었다. (위의 책, 69쪽)

한 강엘리자베트는 자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목숨이 있는 한 남작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고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엔 인습을 받아들이고 현실과 타협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남작이 배신하는 데서 강엘리자베트는 자기에게 미칠 악영향을 알면서도 자신의 존재의미를 최소한이라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강엘리자베트는 남작의 배신에 그냥 물러선다는 것은 양심에 허락할 수 없는 일¹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리한 정황을 생각하고 말없이 서울을 떠나기로 작정한다. 사랑하는 이환이가 이사실을 알게 되는 데서 오는 심리적인 부담과 부인이 주는 상당한 액수의 돈으로 그냥 조용히 살려는 생각이 겹치면서 서울을 떠날 생각을 굳히지만, 막상 인력거에 몸을 싣자 두 가지 생각이 갈등을 일으킨다. 몸은 내쫓기어 서울을 떠나면서도 평소의 신여성으로서의 생활과 꿈을 떨칠 수 없어 마음은 여전히 '자기 둘째 고향'인 서울에 남아 있는 강엘리자베트가 자존심을 버리고 남작에게 돌아가 다시 받아주기를 청하고 싶은 생각과 양심에 허락할 수 없는 남작의 배신에 그냥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자신의 신세에 대한 반발과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후자의 생각으로 기울게 하여 재판하기로 결정한다. 다시 말해 신지식을 동경하고 구습에 안주하여 현실과 타협함으로써 그늘진 삶이나마 자기 한 몸 편히 살고자 하는 생각과 새로 배운 지식이 가리키는 바대로 자신의 주체성을 되찾아 지키고자 하는 생각과의 대립에서 주체성을 지키는 쪽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거기에는 법이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세상이 힘의 논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지만 事理대로 행하면 자신을 세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재판으로 인해 생길 모든 일, 사랑하는 이환과의 관계가 영영 끊어지고 동창들과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모를 감수하고서라도 남작같은 죄인을 그냥둘 수 없다는 의분과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재판을 결정하게 한 것이다.

18) 어제밤에 밤새도록 잠도 안자고, 래일은 꼭 서울을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良心이 설다는 거슬 억지로 그러케 해결까지한 그도, 막상 서울을 쫓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만약 自己가 말할 勇氣만이면 이제라도 人力車를 도리켜서 서울로 向하여스리라 생각치 않을 수가 없었다.(중략) 그는 말을 하고 시퍼짐만 마음속의 엇던 물건이 그거슬 막았다. 그는 입술을 악무렸다.(「창조」2호, 1쪽)

「그래두 재판은 못한다. 우리는 상것시고 저편은 양반이 아니냐」
 아직 채 작당치 못하고 있는 엘니자벳트의 마음이 이 말 한마디 온전히 작당되
 었다. 그는 아즈머니의 말을 웃작 반대하고 시켰다.
 「재판에두 양반 상놈이 있나요」
 「그래두 지금은 주먹 턴디란다.」
 엘니자벳트는 눈살을 찌프렸다. 양반상놈 問題에 얼토당토아는 주먹을 내려놓는
 아즈머니의 무식이 그의게는 輕蔑스럽기도 하고 성도 났다. 그러치만 그말의 眞理는
 自己의 지낸 일노 미루어 보아도 그르달 수가 업섯다. 그래도 재판은 꼭하고 시켰
 다.¹⁹⁾

위의 인용문에서 볼 때 겉으로는 강엘리자베트가 오촌 숙모의 말에 반발하
 여 재판을 결심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법률을 아는 사람의 자문까지 얻어
 내심으로 결심한 일에 대한 촉진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오히려 법 앞에서
 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에 의지하여 재판에는 양반과 상민이 없다는 순진한
 믿음을 갖고, 내면적으로는 자신에게 내재한 신분의식을 단호히 끊고 친일파
 이고 지배계층인 남작의 위선과 허위를 폭로하여 실상을 드러냄으로써 지식
 인으로서의 자세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장에서 강엘리자베트는 남작에게 당할 때처럼 당황하고 생각이
 정돈되지 않아 자기주장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주장하지도 못하는 대신, 남작
 은 변호사를 들여 친일파로서 “주먹천지의 세상”의 힘을 업고 일방적으로 이
 긴다.

믿고 있던 법도 믿을 수 없게된 사실로 인해 강엘리자베트는 또 다시 허망
 함과 절망에 빠지면서 자신의 20년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강엘리자베트는 자
 신의 존재가 거미줄에 걸려 죽기를 기다리는 파리와 같은 신세임을 생각하면
 서 그것은 삶의 중심을 주체적으로 확고히 세우지 않은 데서 기인하고 있다
 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²⁰⁾ 선진문명이 세상을 압도하는 현실에서
 신지식을 익히는 자신을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도취되어 오기를
 부렸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망상에 사로잡힌 무력한 존재였는
 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주체적 중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강엘리자베트는 이제까지 세상을 보던 눈을 바꾸게 된다. 시골에

19) 「창조」 2호, 6쪽.

20) 「헛데로 도라간 二十년, 쓸데업는 二十년, 나를 모르고 산-二十년, 남의게 팔니워
 산-二十년」(위의 책, 13쪽)이라고 하면서 통절히 느끼고 있다.

서 무식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촌숙모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더 환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事理가 통하는 세상이 아닌 힘의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스스로 세우고 처해진 처지를 헤아리면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인정이 넘치고 곳곳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촌숙모의 모습을 통해 그녀의 강함과 자신의 어리석은 우월함을 깨우치게 된다.

「하야! 《한숨을 쉬이고》 걱정마라. 거저 걱정마라. 내가 잊지안냐? 인젠 굿갯것들이 무어세 쓸때가 잇서? 나하구 이러케 편안-히 村에서 사는거시 오직 조호냐! 아-무 걱정업시-----. 지난 일은 다-뚝이다-뚝이야! 다투마려라!」
「강한者!」 엘리자벳트는 속으로 고향을 쳤다. 「아즈머니는 강한者이고 나는 약한者이고----- 그새이에 무슨 差別이 이슬고?!」²¹⁾

절망에 빠진 질녀를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질녀를 위한 이제까지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볼 때, 오촌숙모의 잊어라는 말 속에 담긴 마음과 자세는 재판에서의 패배가 힘없는 자의 필연적인 결과이니 당연히 받아들이고 잊어라는 태도는 아니다. 오히려 절망을 딛고 일어나 새삶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결과 냄새나는 시골이 더 정답게 느껴지고 절망에서 벗어나 삶의 의지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²²⁾ 이는 신문명의 주체적인 수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를 새로이 세우는 것이면서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의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와 같은 존재의미의 자각이 작품의 끝부분 12장에서 전개되고 있다.

재판 전까지 가졌던 서울 도시에 대한 환상과 그 속에서 품은 꿈은 재판이란 신문명이 자기를 보호하고 보장해주리라는 믿음에서 가능했다. 신지식을 익혀 반상의 구습을 타파하고 자유연애를 동경하며 신문명을 추종할 수 있었

21) 위의 책, 20쪽.

22) “그는 눈을 번쩍떴다. 어니뎃 역한 내용새나는 모괴당이 그를 더뎡고 그의 겨테는 五寸母가 번 쫓 누어서 답답한 코를 구르고 이섯다. 우에는 불씨를 잔쑥 안지우고 그아래서 숨찬드시 할낙할낙하는 石油램프는 모괴당 밧게서 반득썰가치 반쑥거리며 할쑥거리고 이섯다.

「가 - 느른 목숨으로라도 사라지는쑥 사라라!」 그램프는 소군거리는 것 잣다.-----“(위의 책, 17쪽)

던 것은 그것이 선진국의 문명이고 세세상의 규범으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한 데서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자신을 구속하고 파멸시키는 데서 신지식과 신문명에 대한 환상은 깨어지고 자신이 그 스스로 중심을 세워야 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신문명은 강자의 편에 서서 우열과 힘의 논리로 작용할 뿐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문명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기보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한다.²³⁾ 강엘리자베트가 자신을 '약한자의 표본생활'로 규정하고 있는 문면²⁴⁾에서의 약한자의 의미는 삶의 중심을 주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한정되고 있어, 강엘리자베트가 인식하고 있는 "나도 시방은 강한 者이다! 자기의 약한거슬 自覺할 그 때에는 나도 강한者이다."라고 할 때의 강자에 대한 의미도 이제까지 강엘리자베트 자신의 행위가 주체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 이후부터 주체적으로 되겠다는 의미에서의 강자이다. 그러므로 비록 힘이 약해 약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세울 때 그 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나 뿐아니라 이 누리의 서름 -- 아니! 서름뿐아니라 모-든 不滿足, 不平들이 모도 어되서 나왔는가? 약한데서! 世上이 나쁜 것도 아니다! 人類가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만 약한 연고인 탓에 쓰무어시 이스리오! 지금 세상을 罪惡世上이라 하는거슨 이세상이-- 아니! 우리 사람이 약한 연고이다! 거기는 죄악도 업고 속임도 업다."²⁵⁾에서의 의미도 겉으로는 힘이 약한 자아의 비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우승열패의 논리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나, 전후맥락에서 볼 때, 優勝劣敗의 논리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쁘고 잘못된 것인 줄을 알지만 세상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에 대한 냉정한 비판을 통해 주체적인 자아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23) 작품 끝부분에서 강엘리자베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서울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고, 강자를 염원하는 것은 신문명에 대한 강한 긍정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4) "나는 참 약했다. 일 하나이라도 내가 하고시켜서 한 거시 어되 있는가! 世上사람이 이러타 하니 나도 이러타, 이일을 하면 남들은 나를 잊지 불가 이런 걱정으로 두룩 거리면서 지나스니 잊지 이지경에 니르지 아나스리오!"(위의 책, 21쪽)

25) 위의 책, 20쪽.

26) 김홍규가 <荒廢한 삶과 英雄主義>('문학과 지성', 1977 봄호)에서 강엘리자베트의 삶을 '황폐한 삶'이라고 규정한 것은 일면적으로 타당한 것 같으나 구조주의적

그러면서 주체적인 자아정립의 바탕으로 보편적인 ‘사랑’²⁷⁾을 직관적으로 내세운 것은 근대문명의 맹점인 도덕성 결여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강한 것은 힘만이 아닌 도덕성을 견비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즉 작품에서 정조를 유린한 남작이나 그것을 두둔하는 사회제도 더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전개논리를 통해 작자는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여 지배하고 있는 것들, 남작과 일본제국주의를 암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자세에서 현실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진정한 주체성은 도덕성을 깊이 자각하는 데에 있으며 그것에서 진정한 힘이 생성되고 강자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인공이 참된 강자의 조건으로써 사랑을 생각한 뒤 “누리에 놀니워 살든 그는 지금은 그 우에 올라섰다”²⁸⁾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힘의 논리에서는 약자인 주인공이 세상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 왔지만, 인간다움의 근거인 보편적인 사랑에 입각해서 볼 때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회복했다는 의미이다.

결국 <약한자의 슬픔>은 주인공의 자아각성과정을 보여주면서, 선진문명의 위세에 압도되어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 맹종하여 기를 펴지 못하고 살던 주인공이 삶의 본질적 의미를 자각하는 데서 그것의 모순을 파악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이 약함-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각에서 본 대립구조의 극단적인 면만이 강조된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편협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 27) “萬若 참 강한者가 되려면? 사랑안에서 사라야한다. 宇宙에 널려 있는 사랑, 自然에 퍼져있는 사랑, 텅진란만한 어린아해의 사랑!”(「창조」 2호, 21쪽)

김홍규가 이 부분을 앞의 논문에서 “전혀 우발적인 관념의 작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관념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발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주인공의 사랑과 존재의미에 대한 자각과정을 통해 볼 때 내면에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동욱은 <金東仁 文學과 審美意識>에서 “엘리자베트의 ‘사랑’의 각성은 외부적 사건에 의한 불행의 극복이나 회복이 아니라 불운과 불행을 겪은 사람이 패배한 채로 精神主義의 克服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준다”(50쪽)고 했다.(「우리시대의 작가와 모순의 미학」, 개문사, 1982.)

- 28) 「창조」 2호, 21쪽.

물론 원론적인 주장이지만 한 개체의 주체성 회복을 통해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를 지적한 것이어서, 적어도 김동인이 당대 현실과 문명에 대해 비켜서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²⁹⁾

2. <마음이 열은 者여>

편지와 일기의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는 <마음이 열은 者여>는 신지식을 배웠으나 구습에 여전히 젖어 있는 주요인물들을 통해 신지식의 잘못된 수용을 고발하고, 주인공의 잘못된 삶에 대한 반성을 통해 개체의 존재의미를 다시 세우고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 K는 5년 동안 서울에서 공부한 후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자기가 없는 동안 아내도 공부를 많이 하여 훌륭한 부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집안일과 공부와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 파리해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기다림으로 이제 자기가 돌아서면 기뻐서 말도 못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늙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만이 자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 접하면서 주인공은 아내가 자신이 공부하는 동안 친정에 가 있고 늙은 어머니에게 봉양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기 소식을 듣고 친정서 돌아온 아내의 모습은 농사일로 인해 새까맣게 탄 얼굴로 살진 허리를 보이고 있어 마음은 걱정없이 지낸 것으로 비쳐졌다. 주인공은 자기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에서 아내에게 대한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

주인공은 '예배당에서 예를 이루는 새부부'나 '넓은 길을 좁게 다니는 젊은 부부'를 부럽게 볼 때처럼 자기 아내도 신여성의 모습을 갖추어 신지식을 익

29) 신동욱은 앞의 논문에서 “이 작품에서는 적어도 약육강식의 非情의 世界相이 제시되고 있고, 일제하의 우리 삶이 겪어 나아가던 당시대적 살벌함과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관계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51쪽)고 했는데 비해, 임형택은 “「약한자의 슬픔」의 주제는 강자에 의한 약자의 압박을 합리화시키고 나아가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변호하고 그에 순응하는 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신문학운동과 민족 현실의 발전〉, 「창작과 비평」, 1973년 봄호, 40쪽.)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내면적인 전개논리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표면적인 문면만을 살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힌 자기와 어울리기를 바란 것이다. 예배당은 새로운 문명의 이입과 새로운 사상의 산물으로써 주인공 역시 새로운 사상에 접하면서 남녀간에 있어서도 자유로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유로이 연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가슴 속에 깊은 사랑은 드러내지 않은 채 덤덤히 대하는 아내의 모습보다, 기다림에 목이 타 애절한 모습을 하고 연애하는 신여성처럼 사랑에 대한 표현이 적극적이길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아내에게 바라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집안일을 정성껏 돌보는 현모양처이다. 독수공방하며 집안의 힘든 일을 맡없이 참고 지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가장이 없는 가운데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일로만 여긴다. 결국 신지식을 갖춘 賢母良妻를 바랐지만 아내는 주인공의 눈으로 볼 때 그 어느 것도 되어 있지 않았다. 평범한 구식 여자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주인공은 신문명의 지식으로 꾸민 이상에 젖어 촌티가 나는 아내가 싫던 차에 불효했다는 이유를 들어 별거한다.

그런데 주인공이 아내 혼자서 집안의 여러 일을 감당하기에는 벅차다는 것과 그로 인해 자기 몸조차 돌볼 여가가 없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채(주인공 K의 친구 C는 이런 측면에서 자유연애를 주창하기 전에 하녀와 같은 조선의 머느리를 해방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주인공도 여기에 동조하나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못한다.), 도회지의 여학생과 같기를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이다. 주인공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아내에게 요구했듯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신이 술선수범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도외시 한 채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만을 추구한다.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부모와 처자를 시골로 보낸 주인공이 평양의 생활에서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생각나는 것은 ‘여자를 바라보는 것과 미인의 남편이 되는 공상’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든 구습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자유연애로써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유부남이란 것이 양심에 걸려³⁰⁾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남존여비의 사상에 젖어 다만 신여성이 자기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이기적이고 수동적인 주인공은 교사인 Y라는 여성이 다가오자 속으로 패재를 부른다. 자신이 공상하던 것과는 달리 Y는 미인

30) “내게는 아직 法律上 安해가 있다. 安해와 離婚, 그거시 문대이다. 리혼은 도저히 할 수 없다. 良心에 부끄럽고 良心이 찌려서 할 수 없다.”(「창조」 제4호, 18쪽)

도 아니고 집안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단지 신여성이라는 것에 취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Y가 어릴 때 약혼한 사람이 있어 딴 곳으로 시집을 가야한다고 하자 주인공은 Y의 마음을 붙들어 굳게 해주지는 않고 오히려 Y가 마음이 흔들린다고 책망하면서 가고 싶으면 가라고 말한다. Y의 처지야 어찌 되든지 자기와 함께 있어주기만을 고대할 뿐이다. 주인공은 자유연애로 가정을 파괴했다는 소리도 듣기 싫고 Y라는 여성을 자신의 욕망충족의 대상으로 그냥 붙들어 두고 싶은 마음 뿐이다. 주인공은 사회적 체면유지와 욕망충족이란, 자신의 처지에서 도저히 함께 이룰 수 없는 이기적인 욕구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구식의 아내의 시대에 뒤떨어져 싫지만 아내의 헌신적인 행위와 정신적인 사랑을 마음 속으로 칭송하고 있고³¹⁾, 신여성 Y는 자유연애의 대상으로는 자기와 맞지만 현실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실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³²⁾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주인공은 Y에게 자기 아내처럼 자기에게 헌신적이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 자신이 중심을 잡고 분명한 판단을 내려 일을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주인공이 자기 모순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그것을 해소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삶의 중심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세우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³³⁾

주인공은 겉으로는 신지식에 따라 자기에게 편한대로 행동하면서도 신지식이 근거하고 있는 바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사고의 바탕인데, 주인공은 자기의 인권과 자율성만 주장하고 상대방의 인권과 자율성은 무시하고 있어 여전히 남존여비의 구습에 젖어 있다. 신지식에 바탕하여 볼 때 기존규범이 낡은 것으로 무시하면서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은 주

31) “그의 나에 대한 사랑은 그거시 義務의인지 아닌지는 쪽쪽이 모르되 肉의이 아닌거슨 分明하다. 그의 나에 대한 사랑은 엇더턴 참사랑이다.”(앞의 책, 18쪽)

32) “엇던 結婚式이 南山재 레배당서 舉行되는 고로 Y와 합씨 具경을 갖다. (중략) 집에 도라오니 가슴이 무겁다. 나와 Y는 언제나 더러케 여러사람 아페서 二世의 맹세를 매줄고, 「도저히 못된다」 뉘가 속색인다.(앞의 책, 17쪽)

33) 이 작품에 대한 주요한의 비평(<性格破産>, 「창조」8집)에서도 주인공 “K의 性格의 根本的 特徵은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4쪽)라고 지적하면서 “過渡期에 한 朝鮮靑年の 典型的性格”(2쪽)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인공은 그 어느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³⁴⁾ 습관화된 기존규범에 따라 행동하고 관념화된 자신의 완고한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 탓만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상황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현실을 헤쳐나갈 방향을 잃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은 자신부터 혁신해야 변하는데 자신은 그냥 있고 상대방만 변하라고 하니 일이 되는 것이 없다. 결국 妻子를 죽게한 뒤에야 그것을 깨닫게 된다. 신지식에 사로잡힌 허상을 엄청난 회생을 치르고 난 뒤에야 깨게 되는 것이다.

아- 안해여 - 용서하라!

그대를 이러케 한거슨 지금 利己의男子들이 發明한 그, 女子의 人權을 蔑視한 惡思潮에 취하였던, 이 나 그대의 남편이다!³⁵⁾

삶의 바탕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자기만이 인간다운 것을 추구하는 데서 그리고 자신이 인간다운 것을 추구하면 상대방도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삶의 중심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에서 정해지고 그것은 개체의 인권존중이란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주인공은 妻子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에 바탕하여 기존규범과 신지식을 새로이 인식하게 된다. 즉 남존여비의 구습을 타파하고, 자기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자유연애가 아니라 인권존중이 그 바탕임을 새삼 알게 되는 것이다.³⁶⁾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겪은 뒤 주인공이 “인제부터는 참삶을 사를터이다”³⁷⁾라고 다짐하

34) “그의 Y에 대한 煩悶은 亦是 「하고서퍼서 하는 煩悶」에 지나지 못하였다. 뜻하지 안코 나오는 참마음의 煩悶이 아니다. 「내게는 무슨 번민이 있다 Y는 간다」부터 생각하여 쓰내이는 他發의번민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중거로는 혼자서 갑갑히 이리저리 생각할 때야만 그는 自己의 번민을 깨다랐다. 참煩悶이 잇는 사람은 K와가치 그러케까지 한가히 煩悶치 못한다. --K는 「그러러니」 생각하였다.”(「창조」 제5호, 40쪽)에서 볼 때 주인공은 자기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한대로 유리하게 생각하고 있다.

35) 「창조」 제6호, 20쪽.

36) 김동인의 경우 이는 더 나아가 인생과 신문명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는데 「배파라기」, 「감자」와 같은 작품이 그 예이다.

37) 위의 책, 20쪽.

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 상황에서 유리된 신지식의 허상에서 벗어나 신지식의 바탕인 개체의 존엄성에 근거한 삶의 중심을 세우되, 너와 나가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걸어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열린 者여」는 신지식을 익혔으나 구습에 젖어 있는 주요인물들을 통해 설익한 신지식의 잘못된 수용을 비판하고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인권존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변화된 세계에서의 개체의 존재의미를 재정립하고 있다.

III. 윤리규범의 새로운 바탕과 근대인의 의식

강엘리자베트와 K, 두 주인공들의 신문명에 대한 자각과정을 통해 그들의 인식적 바탕이 전과 달리 개체의 존엄성, 人權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전의 작품에서는 주인공들이 선진문명에 대한 선망과 선진문명을 배웠다는 자부심이 대단해 그것으로 기존 규범을 폄하하고 구습에 젖어 있는 민중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계도해야 할 것으로만 인식했다.

신소설에서는 기존의 윤리규범을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관점에서 인식함으로써 경직된 기존규범을 타파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개체의 존재의미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으나 삶의 중심 규범으로는 여전히 기존의 윤리규범을 내세우고 있고 한편으로는 선진 신문명에 대한 동경이 바탕에 깔려 있다.³⁸⁾ 1910년대 단편소설에서는 신문명을 배운 주인공들이 그것만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민중들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그로 인해 생긴 그들과의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신문명을 배운 주인공들은 일제의 지배하에 있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자신이 배운 신지식을 쓸 수가 없다는 것과 신지식이 바탕하고 있는 진화론이 자신에게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방황하게 된다.³⁹⁾ 그러나 그들은 신문명이 바탕하고 있는 본질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학문명(힘)의 우월함만 먼저 생각하고 구습에 젖어 있는 민중들을 신문

38) 이동길, <신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이계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39) 이동길, <1910년대 일인칭소설의 소설사적 의미>, 국어국문학 112호, 1994.

명으로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약한자의 슬픔」과 「마음이 열린 자여」에서는 진화론의 우승 열패의 논리가 아닌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인권의 측면에서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개체의 자율성에 입각한 주체성을 확립하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올바른 방향설정 위한 인식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약한자의 슬픔」에서 강엘리자베트는 신식교육을 통해 자유연애를 꿈꾸면서 그를 통해 소외된 계층에서 상층계층으로 상승하려고 한다. 강엘리자베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신식교육을 통해 개체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남녀평등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엘리자베트가 처음부터 확고하게 이런 의식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남작에게 유린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면서 자기자신에 대한 인식을 보다 철저히 다시 하게 되면서 재인식하게 된 것이다. 개체의 존엄성과 자율성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육을 통해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제 모습을 갖추게 되고 제 값을 지니게 되는지는 그 전까지 확연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신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엘리자베트는 남작부인과, 짝사랑하는 이환에게 대해 죄스러움을 느끼지만 남작과의 관계를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생활해왔다. 임신을 알게 되면서 강엘리자베트는 자신의 사회적 처지와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고 짝사랑하던 이환에게 대한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심한 갈등을 겪게 되지만 한편으로 구습에 의지하면서 남작을 따라 살 것을 생각한다. 그러다가 남작이 배신하는데서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사회적 윤리적으로 구속받게 되는데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강엘리자베트가 자기의 잘못이 없는데도 사회적, 윤리적으로 구속당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그것이 정절을 지키지 못한 자기의 죄이라기보다 정조를 유린한 남작이 더 잘못된 것이란 인식을 하고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 남작의 유죄를 판정받으려고 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신식교육을 받은 결과로서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획득하려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전시대 같으면 정절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죄인이 되어 억울함이 있어도 당하기만 했었지만 이제는 신식교육을 통한 신지식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엘리자베트는

이러한 행위와 주장을 하는 가운데 자기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고 그 행위의 당위성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지를 인식하게 된다.

강엘리자베트는 남작에게 유린당한 후 처음에 그 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신식교육을 받았으나 내면적으로 여전히 인습에 젖어 있고 사교계에 나가고자 하는 욕망과 애욕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환에게 대한 깊은 사랑이 자연히 자신의 행위의 일관성에 대해 반성을 촉발하게 함으로써 자기존재가치에 대해 자각적이게 된다.

몸과 마음이 일치되지 못하는 모순에서 오는 고통을 겪으면서 진정한 사랑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정립하는 가운데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생각을 보다 뚜렷이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후로는 더욱 남작만을 생각하기로 작정하나 남작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이제 자기의 존재가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유린된 자신의 존재가치는 자신이 학교에서 교육 받은 바로 볼 때 법 앞에서 회복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도리어 자신의 도덕성을 의심받게 됨으로써⁴⁰⁾ 자신의 존재가치는 그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존재가치와 도덕성과의 관계를 더욱 확연히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그 결과 자신이 이때까지 스스로를 남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살아온 것이 모두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⁴¹⁾ 것과 동시에 소박하게 사는 오촌 숙모가 강한 자인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남작의 횡포와 재판의 부조리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하게 갖게 된 것이다. 사랑없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는 다시 말

40) 이 때문에 법정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당황하게 된다. 「엘리자베트는 변호사가 「原告의 말은 허황하다」 할 때에 마음이 썩금하였다. 「男爵의 子息인지 엇지알가」 할 때에 가슴에서 「툭」 하는 소리를 드렸다. 병원이야기가 나올 때에 머리가 어그러워지는 것을 깨다랐다. 그 후에 엇지되는지 몰랐다.」(「창조」 2호 10쪽)

41) 엘리자베트가 「나」를 모르고 헛되이 산 이십년이라고(주 15참조) 하면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약한자의 슬픔」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의 의미는 약자로서 당하게 되는 슬픔의 면보다 삶의 중심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데서 오는 나약함으로 인해 빚어진 불행에 대한 자기비판으로서의 불쌍함이란 의미가 더 강하다. 따라서 이는 자기 비하의 모습이라기보다 자기성찰의 모습으로서, 김동인이 주인공의 모순에 대한 폭로를 통해 의도하고 있는 핵심이기도 하다.

해 도덕성이 없는 강자(힘)나 법은 그 정당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인식한 자만이 진정으로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이는 결국 인권에 바탕한 세계인식이고, 동시에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와 행위의 자율성이 자신의 윤리적 결단에 따른 책임으로 뒷받침 될 때에만 그것이 제 값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기도 하다.

「마음이 열린 者여」에서 주인공 K는 신식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신식으로 살고 싶어한다. 그래서 구식의 아내와 별거하고 신여성 Y를 애인으로 사귀면서 욕망을 채우지만 처자도 버릴 수 없고 애인도 포기할 수 없는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처자도 죽고 애인도 떠나버리는 불행을 당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한다.

주인공이 신식으로 살고 싶은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조혼한 구식의 자기 아내이다. 처음엔 자기 아내를 남들이 보지못하는 시골로 보내버리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보지만, 애인 Y가 정식결혼을 은근히 압박해오는 데서 아내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제기된다. 주인공은 이미 Y문제로 인해 세상의 비난을 듣고 있는 터이지만 양심상 아내를 버릴 수 없어 Y에게 시집가지 않기만을 요구할 뿐이다. 주인공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Y가 떠나지 못할 줄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Y는 더 이상 주인공의 욕망충족대상으로 전략될 수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시해버리고 만다. 주인공은 여기에 충격을 받아 당황하고 낙담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된다.

주인공은 자기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을 속으로 인정은 하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행위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상태에서 Y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기로서는 당연한 생각에 기대고 있다가 Y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자 낭패당한 심경에 처한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에서 어긋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의도 밑에 인습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남성중심의 권위가 손상을 입게 되는 데서 오는 당혹감과 허탈감에서 그 절망감도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인공은 처음부터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에 이혼하지 않는 한 신여성과 자유롭게 연애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신여성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신여성이 자기에게 먼저 접근해오기를 기다

리고 있다가(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든지 간에 관계하지 않고)⁴²⁾ 마치 거미줄에 먹이가 걸려들거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충족하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의도였다. 남존여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성의 약점을 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먼저 다가왔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⁴³⁾ 이러한 주인공의 행위는 기존 규범에 의지하면서도 신식교육이 지향하는 생활방식도 누리려는 '간사한'⁴⁴⁾ 행위이다. 그러나 주인공이 신식교육을 받으면서 남존여비의 사고와 일부다처의 인습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지만, 그것은 생각에 그칠 뿐이고 행동화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친구 C의, 자유연애를 주창하기 전에 먼저 며느리를 해방해야 된다는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실천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도하고 믿었던 기대가 어긋나는데서 오는 충격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구습에 젖은 생각을 바꾸게 했다. 세상엔 자신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남성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삶도 있다는 것을 보다 확연히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동시에 금강산 여행동안 신식교육을 받은 지식인답게 분명한 생각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 친구 C를 늘 높이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변화된 세계에서 자신의 삶의 중심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된다.⁴⁵⁾ 게다가 주인공이 도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금강산으로

42) “Y는 美人은 아니다. 그는 所謂 세리상이다. 三角을 세워노는 상이다. 입하나뱃게는 그의 상에서 아름다운 점은 藥에 쓰려고해도 없었다. (그럼? 너는 왜 그를 사랑하였느냐?) 그러타? 그는 異性의 사랑을 들만한 용모는 못되었다. 그리고 내게는 J學校의 女教師로 벗이 많었다. 그럼! 왜 나는 특별히 그를 사랑하였고? 旣教師들은 「좁은 곳에 쫓이다. 나는 그들을 벗으로 사피야는데까지 겁을 내었다. 그와갓지 나와 그들세에는 간격이 잇섯다. 그때에 Y는 내게 사랑을 要求하는 눈치를 보였다.” 그 뿐만 아니라 “Y의 아버지는 평양에 有名한 건달이다.” 그런데도 주인공이 Y와 사귀게 된 것은 계산된 의도-자기마음대로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창조」 3호, 30쪽)

43) 이것을 친구 C가 이미 간파하고 있어서, “Y-니 자넨 안니즈리!” “자네가 먼저 Y를 니즈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인공 자신도 “그의 Y에 대한 煩悶은 역시 「하고서 퍼서 하는 煩悶」에 지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창조」 제5호, 40쪽)

44) “「너는 사나회로서 그 간사한 점과 그밖에 여러 가지로 오히려 性格은 女子에 갓 잡다.(중략)」고 옛편 나의 벗이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창조」 3호, 30쪽)

45) 이러한 인식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여행동안 아내와 Y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하

도피하는 동안 시골의 아내와 자식은 자기를 원망하며 유행병에 걸려 죽게 되는 사태를 당하게 되면서, 주인공은 이제까지 구습에 젖은 채 신식교육을 통해 배운 신문명이 우월하다고 믿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새삼 인식하고 자신의 태도를 혁신하게 된다. 신문명의 허상을 보는 것과 동시에 신문명의 바탕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과도기의 혼란한 현실에 휩싸여 이율배반적이고 애매모호한 태도는 더 이상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주인공들의 인식적 토대는 이제 효나 충도 신지식도 아닌 사람답게 사는 권리 즉 인권에 근거하고 있다. 개체의 존엄성과 자율성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순된 처지에 놓인 불행해진 자신의 절실한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됨으로써, 약속강식이 횡행하는 현실과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순을 인식하게 되고 신식교육에 들뜨고 신문명에 맹목적이었던 데서 벗어나 자신의 양심과 지식에 근거하여 자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개체의 존재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면모가 근대인의 의식으로서 그 인식적 기반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며 앞시대와 달라진 면모이다.⁴⁶⁾ 그리고 그와 같은 반성적인 인식태도를 통해 세계의 상대성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인식을 지니게 되고, 주체의 진정한 존재의미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주인공들이 자신의 양심과 지식에 근거하여 자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개체의 존재의미를 세움으로써 자신이 당면한 현실과 민족적 처지를 돌아볼 때 신지식을 배운 지식인으로서의 우월의식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도리어 자신이 당면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게 되고 민족과 함께 할 수

고 그들을 재인식하게 한 요인이기도 하다.

- 46) 무정은 개체의 욕망 추구라는, 근대인으로서 겪게 되는 자아의 내면적 갈등과 성찰을 그 당시로서는 보다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지만 그것이 바탕하고 있는 진화론의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결여되어 작품전개에서의 논리성이 문제되고 있고 따라서 주인공의 욕망이 민족의식으로 고양되는 과정이 비약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서영채, “<무정>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1. 9. 참조)

있는 길을 모색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개체 자신의 문제로부터 대사회적인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되는 방향전환이 이러한 인식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김동인이, 당대 다른 작가에 비해 볼 때,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지는 않았지만 현실에 대한 자아의 반성적 성찰을 통해 근대인으로서의 인식적 정초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구질서에 대한 새로운 질서로의 편승이라는 단순성에서 벗어나 새질서의 모순을 파악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새질서를 보는 균형감각을 취한 것으로써 근대소설이 지향하는 객관적 관점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V. 결 론

김동인의 초기소설, 「약한 者の 슬픔」과 「마음이 열은 者여」는 주인공들의 내면심리가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작품의 내재적 논리에 따라 작품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겉으로 보아, 비록 스토리 전개에서 느슨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작품은 전체적으로 일관된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작품의 새로운 면모도 밝힐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작품들은 삶의 중심된 가치를 확고히 지닌 인물들이 변화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중심을 정립해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구습에 젖어 있으면서도 신지식을 습득한 지식인으로서 신지식에 따라 변화된 세계에서 자기의 이상적인 삶을 이룰려고 하지만, 신지식의 바탕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세계에 패배하여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신분의 구속이나 구습에서 탈피하여 이상적인 삶을 꿈꾸고 있는 주인공들이 불행해진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남녀평등에 입각한 자유연애나 개체의 존엄성에 입각한 자율성이 개체의 자의적인 사고와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윤리적 결단에 따른 책임으로 뒷받침 될 때 제 값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윤리적 결단은 효, 정절과 같은 경직된 기존규범에 기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삶에서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고히 인식하는 데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하여 경직된 기존규범은 개체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입각하여 재정립되고 신지식도 재인식하게 되어 신문명에 대한 비판적 안목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답게 사는 권리인 인권이 변화된 세계에서의 새로운 윤리적 바탕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주인공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존재의미를 재정립하여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과 새로이 인식하게 된 신지식에 근거하여 삶의 중심을 세우게 된 주인공들은 이제 신지식을 배웠다는 지식인으로서의 우월의식은 사라지고 당면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갖게 됨으로써 민족현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점은 염상섭, 현진건 등의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초기작품에서도 검증되어야 할 것이나 추후의 작업에서 보완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동인전집」 16, 17, 조선일보사, 1988.

「創造」, (태학사, 1982)

「개벽」 제9호, 1921.

김열규 신동욱 편, 「김동인 연구」, 새문사, 1982.

김우중, <약한 者의 슬픔>에 나타나는 弱者의 意味”(「김동인 연구」, 새문사, 1982.

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1987.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8.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김재용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김춘미, 「김동인 연구」, 고려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5.

김홍규, <荒廢한 삶과 英雄主義>, 「김동인 전집」 17, 조선일보사, 1988.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학과 근대성」, 문학과 지성사, 1995.

백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0.

- 서영채, <무정>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1.9.
- 신동욱, 「우리시대의 작가와 모순의 미학」, 개문사, 1982.
- 윤명구, 「金東仁 小說研究」,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0.
- 이강언, <金東仁小說과 內面心理의 表出樣相>, 「영남어문학」 제10집, 1983.12.
- 이동길, <신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이동길, <1910년대 일인칭소설의 소설사적 의미>, 「국어국문학」 112호, 1994.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 임형택, <신문학운동과 민족현실의 발견>, 「창작과 비평」, 1973년 봄호,
- 장백일, 「김동인 문학연구」, 인문당, 1989.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1995.
- 조진기, 「한국근대리얼리즘소설연구」, 새문사, 1989.
- 주요한, <性格破産>, 「창조」 8집, 1921.